

시행 앞둔 융합전공 ... 연계전공과의 차별화 ‘관건’

이서림 기자 silee1001@khu.ac.kr

오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개 이상의 전공이 합쳐진 ‘융합전공’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앞서 우리학교는 2017년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책인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약 1년간 융·복합 교육 신설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에는 9개 전공이 참여한 4개의 신설 융합전공이 먼저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지난 1월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사지원과는 제도 시행을 위한 막바지 조정을 끝내고 융합전공의 소개와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관련 근거에 따르면, 융합전공에 참가하는 학과 학생은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일본어학과나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이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위명이 달라진다. 제1전공의 신청은 2학기 이상 5학기 이하로 등록한 학생만 가능하다. 융합전공에 참여하지 않는 학과의 학생은 다전공으로 이수 가능하다.

지난해 우리학교는 교육과정 개선을 원하는 학과들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공(지리학·주거환경학), 글로벌 엔지니어링전공(사회기반시스템공학·스페인어학·프랑스어학·러시아어학), 글로벌 문화기술전공(일본어학·영미어문학전공·영미문화학전공·소프트웨어융합학), 4D 아트(도예학·환경조경디자인학), 아트&테크놀로지전공(디지털콘텐츠학·소프트웨어융합학), 스마트팜공학전공(원예생명공학·유전공학·식물환경신소재공학) 등 6개 융합전공의 설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행정 부담과 학생 수요 등의 문제로 일부 학과가 개설에 차질을 빚었다. 도시재생전공과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공은 행정 업무에 관해 구성원 간 의견조율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문화기술 전공은 영미어문학전공과 영미문화학전공이 빠진 채로 개설 절차가 진행됐다. 따라서 오는 1학기에는 축소된 글로벌 문화기술 전공을 포함해 4D아트, 아트&테크놀로지, 스마트팜공학 등 4개의 전공이 우선 개설될 예정이다.

참여의사를 보였던 일부 학과가 융합전공 개설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앞서 한 번의 내부 실패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학교는 지난 십여 년 간 ‘융합’ 지향의 교육을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해왔다. 서로 다른 두 학과의 강의를 학생 개인이 자율로 조합해 이수하는 ‘연



계전공제도’가 그 대표적 시도였다. 그러나 서울캠퍼스(서울캠) 3개, 국제캠 8개의 연계전공은 매년 신청자 수 미달로 규모가 감소돼 사실상 폐지 상태다.

연계전공은 특히 관리주체의 부재 문제로 위기를 맞았다. 융합교육지원센터 허균영(원자력공학) 센터장은 “여타 학과처럼 시간표와 학생들을 관리해 줄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새로운 융·복합 교육을 목표로 한 제도였지만, 기존 전공들의 개별 과목을 단순 조합한 형태라 제대로 된 ‘융합’을 실감할 수 없었던 점 또한 실패의 이유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개설 과정에서는 성공 여부에 의문을 가지는 구성원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융합전공이 학생으로부터 외면받아 연계전공과 비슷한 수준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융합전공과정 시행을 위한 학칙 개정안은 반발에 부딪히며 상정 이후 두 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융합전공만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구성원들의 주장에 힘입어, 결국 지난해 9월 전공의 이수 방법·배정·학점취득방법 등 시행 방안이 확

정될 수 있었다.

당시 제기된 우려들은 현재 일부 해결된 상태다. 융합전공의 책임주체 문제에 대해 허 센터장은 “각 전공들은 주관학과와 전공지도교수가 정해져 있어 원동력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융합전공은 신청 학과에 기반해 논의가 진행됐으므로, 책임주체도 과거보다 명확하다는 것이다.

융합전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무엇보다 기존의 다전공이나 연계전공 제도와 달리 각 전공의 중간지점에 있는 과목이 새로 만들어지기에 도출되는 ‘융합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연계전공이 단순한 ‘물리적 융합’에 그쳤다면, 융합전공은 이를 넘어서는 ‘화학적 융합’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융합전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융합전공 당 서울캠 3과목 이내, 국제캠 2~5과목 이내로 전공과목을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공과목은 신규 개설되는 융합전공과 기존 전공별 과목이 해당된다.

이렇듯 시행을 앞두고 몇 가지 해결책이 제시됐지만, 남은 과제도 산적한 상태다. 융합전공이 연계전공과 차별화되는 핵심은 제1전공으로 이수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계전공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세 개의 전공을 듣는 것이었지만, 융합전공의 경우 복합적인 내용을 전공이나 다전공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시행되는 전공들의 경우 제1전공이수는 네 학과 중 한 학과(글로벌 문화기술)만 해당한다. 교육 과정 확립 및 학생 수요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융합전공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개강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지 못한 탓이다. 학사지원과는 수강신청 2주 전 학사지원과 홈페이지 안내문 공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다. 융합전공 참여 학과의 임승현 씨(식물환경신소재공학 2017)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이번 수강신청 때 관련 내용을 접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 “단과대학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홍보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 역시 게시되고 있다. 이에 국제캠 학사지원과 김경민 과장은 “융합전공에 대한 소개를 담은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라며 홍보와 소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청자 수가 적어 융합전공 시행이 또 하나의 ‘시도’로만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융합전공 시행세칙에 따르면, 3년간 융합전공 신청자가 총 10명 미만일 경우 해당 융합전공은 폐지된다. 연계전공이나 융합트랙과 달리 제1전공 학위명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융합전공 진입 결정은 학생들에게 신중한 고민을 요하는 사안이다. 본인의 전공이 한 순간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학생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차별화에 대한 완성도는 가장 중요시되는 ‘숙제’다. 융합전공 신설 준비에 참여했던 김상욱(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융합전공은 단일 전공학문만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한다”며 “인문계와 이공계 간 혹은 같은 계열 내에서 창의적 지적 수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개별 전공을 뛰어넘는 제3의 전공학문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며 “교수진들 간의 소통, 각 학과별로 제한된 개설강좌와 교수진 수, 특정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 등을 해결해 다전공·부전공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수많은 시도 중
‘하나’로 남지 않으려면

제3의 융합학문에 청사진을 그려내야

”

2019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0기(남·여)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1기(남·여)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9년 3월 1일~3월 3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6(토), 합격자 발표 : 4.25(목)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 4.27(토)~5.17(금), 합격자 발표 : 6. 13(목)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 6.17(월)~7.19(금), 최종 합격자 발표 : 8. 16(금)
- 문의처 : 육군학생군사학교 043-830-6031
지원대학 학군단 서울)02-961-0085~6 / 국제)031-201-3271~4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